

Deloitte Insights

Oct 2024



기후 '위기'를 '기회'로, 지속가능성을 행동에 옮기는 글로벌 최고경영진

2024 딜로이트 글로벌 최고경영진
지속가능성 설문조사

Deloitte Global

Deloitte.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리더 메시지

올해 딜로이트가 전 세계 최고경영진(CEO, CFO, CTO 등의 CxO)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세 번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기업 최고경영진들이 저탄소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업적 기회를 실현하고 있다는 지표를 파악했습니다. 이 지표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넷제로를 달성하면 세계 경제가 바뀌게 됩니다. 변화의 속도와 규모는 비록 기후변화의 최악의 영향을 모면하는 데까지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그 증가세가 가팔라졌습니다. 경영진은 일선에서 그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기후행동을 통해 재정적 및 사업적 혜택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기업 성장과 기후행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응답자가 지속가능성을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지속가능성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업 기후행동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가능성 전략이 규제 준수, 위험 관리, 이해관계자 대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가능성은 점차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경쟁의 차별화 요소이자 혁신과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 동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기업 안팎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적극 행동하는 기업들 사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선제적이고 총체적인 접근법이 사업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방증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선도 기업들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변화의 임계점에 도달하고 전환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효과가 큰 몇 가지 주요 조치만 취하고 있는 많은 '온건적'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이러한 기업들이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딜로이트의 2024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온건적 기업들은 기후변화가 당사 비즈니스에 미치는 현재와 미래의 영향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미 지속가능성을 향한 여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온건적인 기업 집단은 잠자는 거인과도 같습니다. 이 그룹의 미지근한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뀐다면 기업 기후행동의 변곡점이 되어 발전을 빠르게 촉진할 수 있습니다.

각 기업의 지속가능성 여정은 저마다 고유하며 때로는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 리더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지속가능성 활동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인식에서 행동으로의 전환은 최고경영진이 지속가능성 투자가 환경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비즈니스 회복탄력성과 성장에 미치는 지속적인 이점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딜로이트 글로벌 지속가능성 비즈니스 리더
Jennifer Steinmann

* 1 UNEP, Emissions Gap Report 2023, November 2023.

* 1 UNFCCC Secretariat, Technical dialogue of the first global stocktake. Synthesis report by the co-facilitators on the technical dialogue,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September 2023

개요

딜로이트의 2024년 글로벌 최고경영진 지속가능성 설문조사 보고서는 27개국 2,100명 이상의 최고경영진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에 관한 견해와 전략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고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과 기회에 대한 인식에 대한 거대한 변화의 징후를 보여준다. 또한 지속가능성이 계속해서 중요한 비즈니스 어젠다임을 보여준다.

일부 뉴스 헤드라인과 달리, 금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 지속가능성 활동은 후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지속가능성 활동에 대한 투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기후행동을 전반적인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는 중요한 초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 ✔ 기후변화가 계속해서 '정치적 불확실성', '공급망 문제', '인재 유치 경쟁' 등을 제치고 최고경영자의 3대 우선순위로 꼽히고 있다.
- ✔ 글로벌 CxO들은 지속가능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투자를 늘리고 있다. 투자를 늘렸다고 응답한 비율이 지난해 75%에서 올해 85%로 증가했다.
- ✔ 기후변화가 향후 3년 동안 기업의 전략과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CxO는 70%로 지난해 61%에서 증가했다. 절반가량(45%)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을 기업 전략의 핵심으로 삼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있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적 잠재력을 깨닫기 시작했다. 지속가능성을 단순 규제 준수나 브랜드 구축 활동이 아닌 신제품, 비즈니스 모델, 가치 창출 전반의 원동력으로 꼽는 CxO가 늘어나고 있다.

- ✔ 최고경영진들은 비즈니스 성공과 기후행동 간의 상충 관계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CxO의 92%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도 회사가 성장할 수 있다고 믿으며, 90%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 ✔ 올해는 브랜드 인지도, 평판 향상 등 무형 자산의 이점보다 고객 충성도, 공급망 효율성, 영업 마진 등 직접적인 사업적 및 환경적 영향을 언급하는 CxO가 더 많았다.
- ✔ CxO들이 향후 5년 동안 가장 기대하는 기후행동의 이점은 제품 혁신 및/또는 운영 혁신이었다.

기후행동은 기술 혁신의 원동력이다. 혁신과 기술 투자는 기후행동과 상충하는 이슈로 여겨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속가능성 활동의 중요한 원동력이다. 이는 기업이 환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성도 있는 신제품과 서비스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준다.

- ✔ 기술 혁신(인공지능 등)은 기후변화보다도 향후 1년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CxO 중 38%가 이를 3대 과제에 포함시켰다.
- ✔ CxO의 50%는 이미 기후 또는 환경 목표를 달성하고자 기술 솔루션을 도입하기 시작했으며, 42%는 향후 2년 내에 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지속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 ✔ 선도 기업 중 85%는 기후 친화적인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혁신과 기후행동 사이의 연관성을 역설한다.

지속가능성은 비즈니스 어젠다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슈이지만, 현재 상태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업의 기후행동은 저마다 매우 상이하다. 선도적인 기업들이 대내외적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있지만 효과가 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기업이 대다수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 경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유를 가지고 움직이는 접근법은 경쟁에 불리하다.

- ✔ 기후변화가 기업 운영과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수(27%)의 기업이 최소한의 조치만 취했거나 가시적 변화를 불러오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기업은 선두주자도, 후발주자도 아니지만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조치를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온건적'인 기업 그룹은 잠자는 거인기도 같다. 이들이 깨어나면 빠른 변화를 주도할 수 있으며 기업 기후행동이 변곡점을 넘어설 수 있다.

- ✔ 절반 이상의 기업(56%)이 2~3가지의 가시적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떠오르는 녹색 경제에 기여하는 지속가능성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쪽이며, 다른 하나는 자사의 환경적 영향을 해결하고 공급망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는 데 중점을 두는 쪽이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CxO의 현재 기후행동 현황을 살펴보고, 온건적 그룹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에 대해 탐구한다. 온건적 그룹이 취하고 있는 행동과 직면한 장벽, 그리고 지속가능한 경영의 포괄적 접근법을 모델로 삼는 선도 기업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을 통해, 기업 내에서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행동을 촉진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전략적 우선순위와 과제



“저는 지속가능성과 재무, 비즈니스를 통합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완전히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없고 기업 내에서 많은 좌절과 딜레마를 겪게 될 것입니다.

잉카 그룹(IKEA) 부대표 & 경영이사회 멤버 & CFO
Juvenio Maetzu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도전과제와 혼란이 있지만, 지속가능성을 비즈니스 전략의 핵심으로 삼았기 때문에 저희의 포부와 의지는 여전히 굳건합니다. 또한 회장을 겸하는 CEO가 이러한 지속가능성 활동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메이플 리프 푸드 최고식품안전및지속가능성책임자
Randy Huff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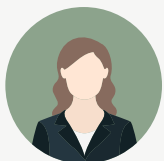
“구글은 운영과 에너지라는 해결 과제에 집중하던 전략에서 나아가, 구글을 정보 및 혁신 기업으로 바라보며 기업과 정책입안자, 개개인이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의 힘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중대한 기회를 포착하는 데까지 전략을 확장해 왔습니다.

구글 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
Kate Brandt



“지속가능성은 우리의 핵심 가치이자 전반적인 전략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속가능성 활동은 탄소소화를 넘어 기아 퇴치 프로그램, 직원 안전, 전반적인 웰빙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퓨로레이터 사장 & CEO
John Ferguson



“고객들이 계속해서 ESG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다 많은 ESG 지원과 서비스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고객들은 ESG 공약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객의 약속을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소통을 기대하고 있으며 보다 세심한 책임감을 가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레노버 글로벌 ESG 및 규제 준수 담당 수석위원
Mary Jacques

기후변화는 여전히 최우선 과제로, 지속가능성 투자 증가세

전 세계 CxO들은 다른 도전과제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성 투자를 늘리고 기후변화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등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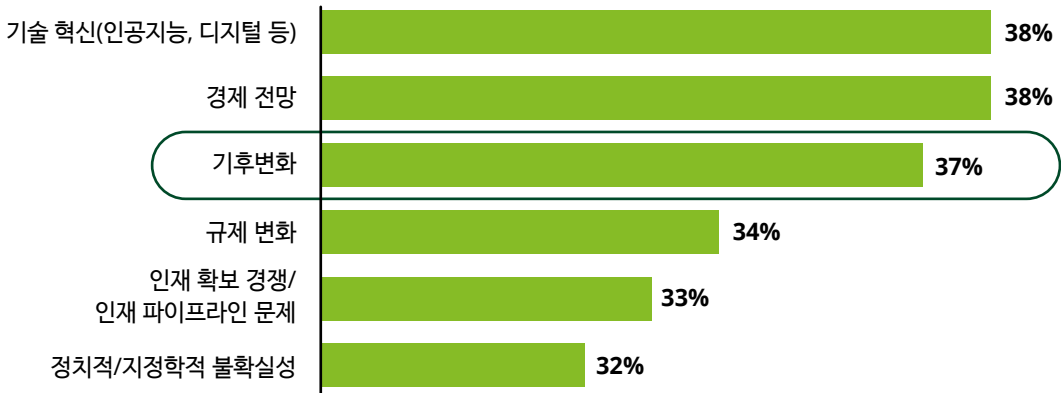
- ✔ 기후변화는 정치적/지정학적 불확실성, 규제 변화, 인재 경쟁 등을 제치고 CxO의 3대 우선순위로 꼽혔다. 이에 대한 헌신도는 지속되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 ✔ 지난해 가장 시급한 이슈 중 3위를 차지했던 '기술 혁신'은 경제 전망과 기후변화 이슈를 모두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 ✔ 85%의 기업이 지난해 지속가능성 투자를 늘렸다. 이는 기업들이 경제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환경 목표에 전념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투자를 줄인 기업은 1%에 불과했다.
- ✔ 지속가능성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1년간 지속가능성 투자를 소폭 또는 대폭 늘렸다고 답한 응답자가 2023년 조사에 비해 10%p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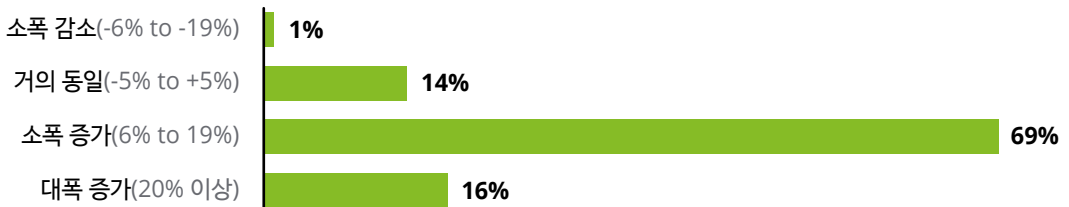
Q 귀사에서 내년에 집중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이슈는 무엇입니까?

(중요도 순으로 9가지 선택지에 순위를 매기세요.)

■ Top 3에 포함된 비율



Q 지난 한 해 동안 지속가능성 투자는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기업 전략과 운영에 지대한 영향 미치는 기후변화

기후변화가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기업 전략과 운영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인식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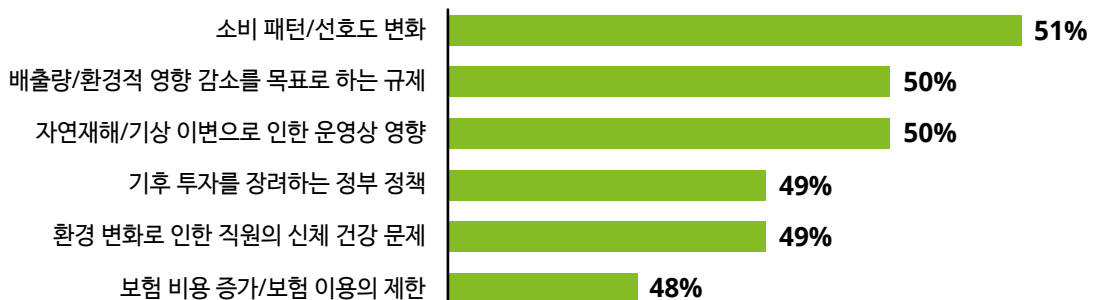
- ✔ 현재 70%의 기업이 기후변화가 전략과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2023년 61%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기후변화는 핵심 비즈니스 이슈이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이 진행됨에 따라 위험과 기회를 인식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 ✔ 이미 몇 가지 주요 기후 문제가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다.
 - 1. 소비 패턴의 변화:** 2024년 3월 딜로이트가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64%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구매 행동을 바꿨다고 응답했다. 이는 전년도 53%에서 11%p 증가한 수치다.
 - 2. 규제 압박:** 기업들은 빠르게 진화하는 지속가능성 공시 규정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산업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다.
 - 3. 자연재해의 운영상 영향:**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의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하면서 기후변화 적응과 회복탄력성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2024년 3월 딜로이트 US 컨슈머시그널 설문조사

Q 기후변화가 향후 3년 동안 귀사의 전략과 운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1개 선택)



Q 이미 회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요 기후 문제
(해당되는 항목 모두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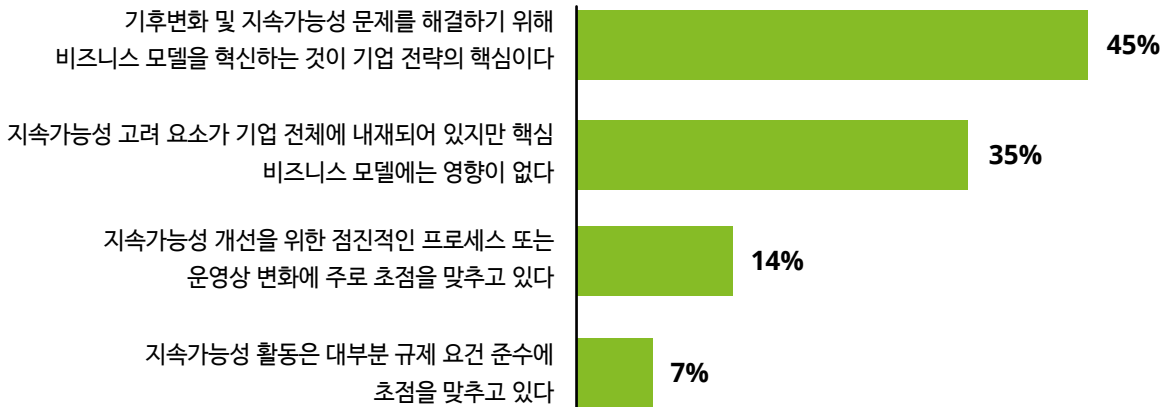
비즈니스 모델 혁신하고 운영 전반에 지속가능성 도입하는 선도기업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이슈에 다양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운영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 고려사항을 내재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 45%의 기업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을 전략의 핵심 요소로 삼아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가능성을 핵심 비즈니스 기능에 통합하려는 기업의 강한 의지를 시사한다.
- ✔ 35%의 기업에서는 지속가능성이 아직 핵심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력이 없지만, 기업 전반적으로 지속가능성 고려사항을 내재화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져 있음을 나타낸다.
- ✔ 반면 14%의 기업은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로 점진적인 프로세스나 운영상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신중하거나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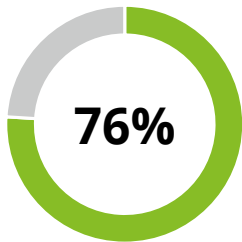
Q 다음 중 환경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귀사의 현재 접근법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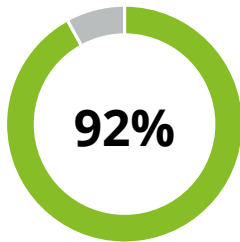
CxO들은 사업 성공과 기후행동이 상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CxO들의 견해는 기후변화의 양가적인 현실을 보여준다. 2023년은 기록상 가장 더운 해였으며,¹ 많은 과학자들은 1.5°C 목표의 달성 가능 여부에 대해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² 그러나 동시에 2023년에는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주요 기후 기술이 눈에 띄게 확대되면서 전환이 가속화되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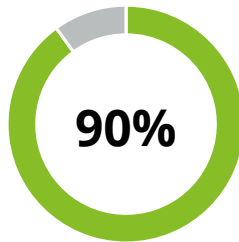
- ✔ 응답자 중 76%가 기후변화에 대해 항상 또는 거의 항상 우려하고 있다고 답해,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CxO의 인식 수준이 높으며 스트레스 수준 또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지난해 동일하게 대답한 응답자 비율이 62%였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해 심각한 홍수와 해수면 상승, 폭염, 극심한 가뭄이나 물 부족 등 기후위기에 서 파생된 사건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 지난해에는 78%가 최악의 기후변화 영향을 피하기 위해 전 세계가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올해는 92%가 다소/매우 낙관적이라고 답해, 올해 CxO의 낙관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CxO의 92%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회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90%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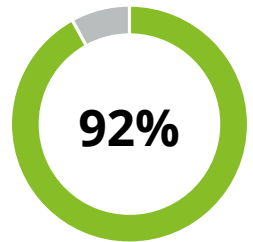
항상 또는 거의 항상 기후변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전 세계가 기후변화의 최악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소/매우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전 세계가 기후대응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데 동의/매우 동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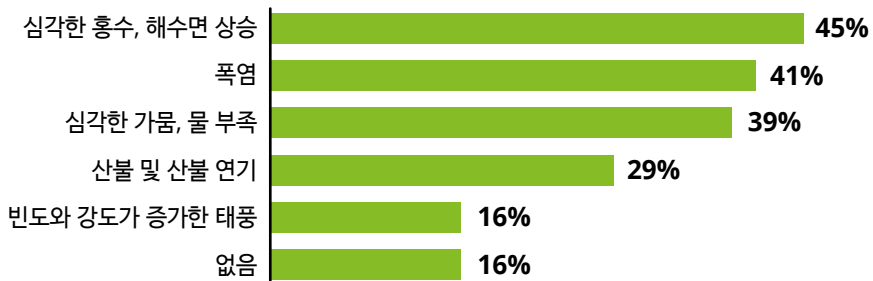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회사가 계속 성장할 수 있다는 데 동의/매우 동의한다



Q 지난해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 항목 모두 선택)



이해관계자로부터 광범위한 압박을 받는 기업들

기업들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다양한 내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 ✔ **규제기관/정부:** 60%의 기업이 규제 당국으로부터 기후 대응 노력을 강화하라는 압박을 상당 수준 받고 있다고 느낀다. 이러한 압박은 주로 기후행동 강화(8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규제 준수에 대한 기대치와 요건이 엄격함을 시사한다.
- ✔ **이사회 멤버/경영진:** 기업 중 60%는 또한 이사회와 경영진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 ✔ **주주/투자자:** 많은 기업(60%)이 주주와 투자자의 압박을 상당 수준 느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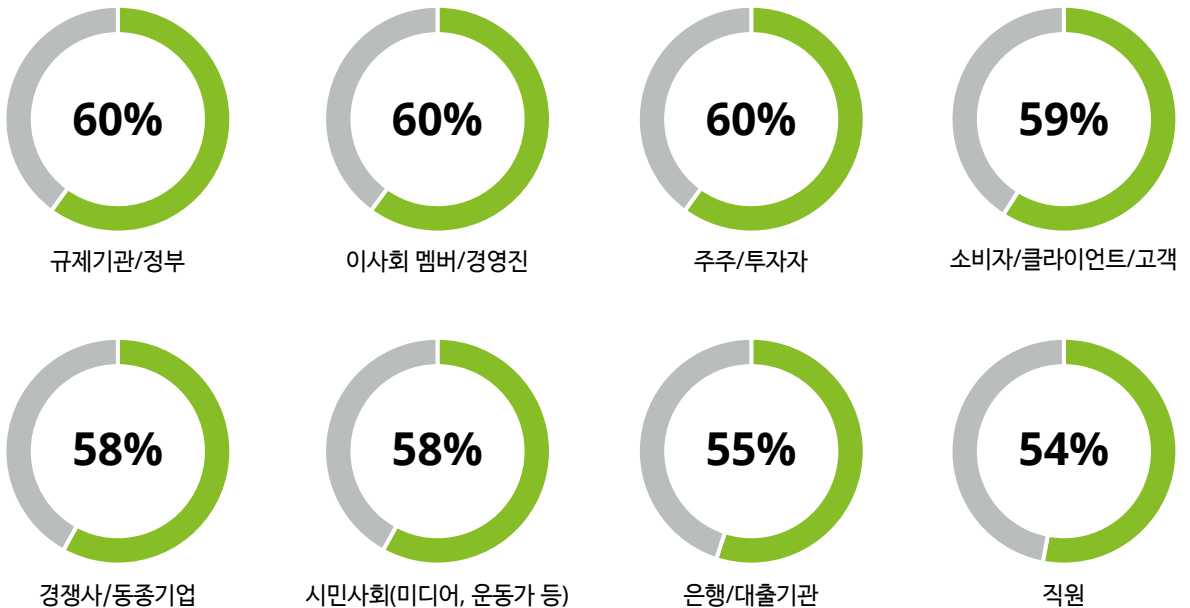
이해관계자들이 가하는 압박은 대부분 기후행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기업이 기후행동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시도는 거의 없다.



Q 귀사가 이해관계자로부터 기후변화에 대해 행동하라는 압박을 받는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해당 항목 모두 선택)

■ 압박을 크게/보통 수준으로 느낀다



모든 이해관계자 그룹에서 **평균 79%***가 기업에 기후행동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수치는 '기후행동을 다소 또는 상당히 늘려야 한다'를 선택한 모든 이해관계자 그룹의 평균을 나타낸다.

지속적으로 기후대응 진전을 가로막는 장벽

환경적 지속가능성 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벽을 묻는 질문에 CxO들은 12가지를 꼽았는데 그 중 특히 더 두드러지는 항목은 없었다. 이는 환경 보호 목표를 달성하는 데 과제가 복잡함을 의미한다.

- ✔ 주요 장벽 중 하나는 지속가능한 솔루션 부족 또는 지속가능한 투입 자원의 공급 부족으로, 21%의 기업이 이를 주요 장벽으로 꼽았다. 이러한 부족 현상은 기업이 운영 전반적으로 지속가능한 관행을 완전히 구현하는 데 장벽이 될 것이다.
- ✔ 또 다른 장벽은 필요한 변화에 대한 정치적 지원과 조치가 부족하다는 점으로, 이 역시 21%의 기업이 주요 장벽으로 꼽았다. 탄탄한 정치적 지원 없이는 기업이 지속가능성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Q 지속가능성 활동을 가로막는 Top 5 장벽은?

(상위 2개 선택)

21%

지속가능한 솔루션
부족/지속가능한
투입 자원의 공급
부족

21%

필요한 변화를
위한 정치적 지원과
조치 부족

19%

입장을 취할 경우
일부 고객 또는
직원이 소외될 우려

18%

단기적인 비즈니스
과제나 투자자/
주주의 요구에 집중

18%

지속가능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객/클라이언트의
수요 부족

전망과 기업 행동



“무엇보다도 저희는 기후변화 대응을 고객사의 재정과 운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영속적이고 거시적인 트렌드로 보고 있습니다. 고객의 기후대응 여정을 돕고 고객이 겪는 압박을 줄이며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일정한 행동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해도 좋고 안 해도 무방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 성장과 기회를 포착하며 고객이 비즈니스를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SAP 최고지속가능성및커머셜 책임자
Sophia Mendelsohn



“지속가능성은 소수를 위한 사치가 되어서는 안 되며, 다수에게 감당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입니다.

잉카 그룹(IKEA) 부대표 & 경영이사회 멤버 & CFO
Juvencio Maeztu



“넷제로(net-zero)를 달성하려면 특히 신흥 시장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하지만, 탈탄소화와 전기 발전 분야에서 차세대 기후 기술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큐베이터를 설립하고 기후 기술 기업에 막대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직 농업(vertical farming), 수소, 탄소포집 등의 분야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프로세스의 초기 벤처 단계에 많은 자본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 기업 및 투자 은행 지속가능금융 글로벌 책임자
Daniel Hanna



“저희 지속가능성 전략은 공급망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항생제 없이 가축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왔지만, 공급망 내에서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삼림파괴 위험과 수자원 보존 문제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메이플 리프 푸드 최고식품안전및지속가능성책임자
Randy Huffman



“저희는 2022년 가을에 2030년까지 스코프 1과 2의 탄소 배출량을 50% 감축하겠다는 미국 보건 복지부 서약에 서명했습니다. 현재 실행 중인 전략에 따르면 2026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합리적이면서도 재정적으로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이러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어드벤처스 최고재무책임자
Paul Rathbun

저탄소 경제 전환의 재정적 이점을 점차 인식하는 CxO들

지난해에 비해 CxO들은 전반적으로 보다 다양한 이점을 경험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광범위한 기후 문제에 대한 영향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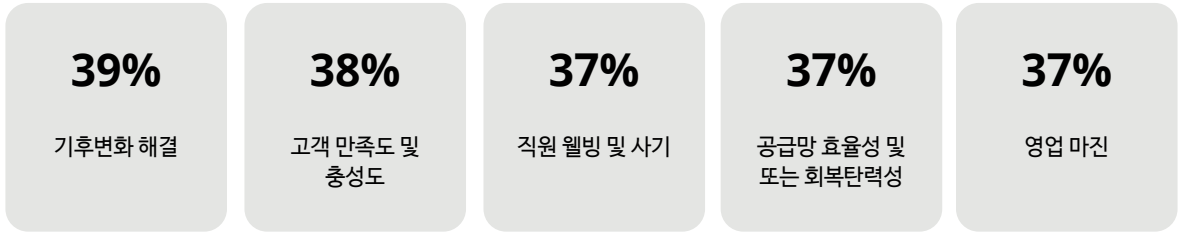
- 2023년 상위 5위와 하위 5위에 상당한 격차가 있었다. '기후변화 해결'이 5위로, 1위를 차지한 '브랜드 인지도 및 평판' 보다 12%p 뒤처져 있었다. 올해 이점별로 훨씬 더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기후변화 해결이 39%로 1위를 차지했다.
- 지난해에는 기후행동의 재정적 이점이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올해 결과는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에서 실질적인 재정적 이점을 얻는 데 진전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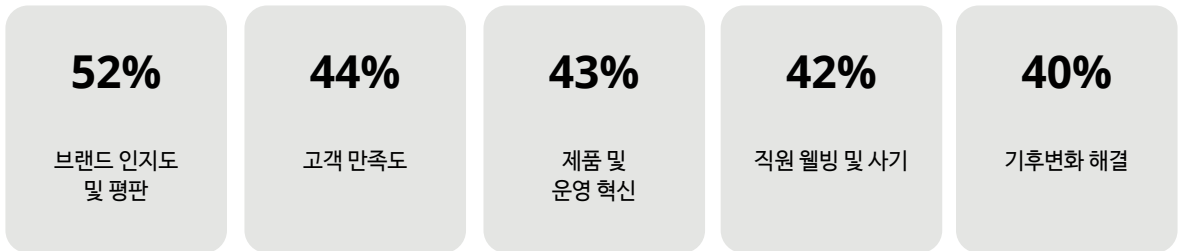
Q 지금까지 지속가능성 활동이 귀사의 비즈니스에 가져온 가장 큰 이점은 무엇인가요?

(Top5 선택)

Top 5 이점(2024)



Top 5 이점(2023)



경영진이 기대하는 지속가능성 활동의 최대 이점은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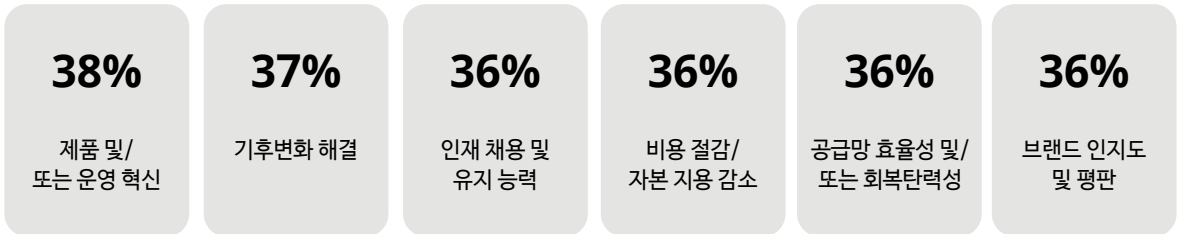
기업들은 향후 5년 이내 지속가능성 활동을 통해 거둘 다양한 이점을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혁신과 기후변화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 ✔ 서비스 및 제품의 혁신은 지속가능성 활동의 이점으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지속가능성 이슈가 기후변화와 최우선 과제인 혁신을 모두 다루면서도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창의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기후변화 해결은 여전히 최대 이점이며, 기업은 계속해서 환경상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활동을 중요시하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직원에게 이러한 기업은 매력적이므로 인재 채용 및 유지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 직원 사기 진작 등 상대적으로 하위권인 이점도 무려 33%의 CxO가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잠재적 이점을 기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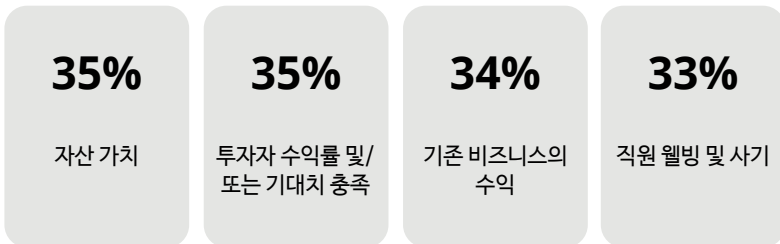


Q 향후 5년 내 기대되는 주요 이점 (Top5 선택)

상위 이점



하위 이점



첨단기술로 다양한 지속가능성 활동 추진하는 기업들

기업들은 공급업체, 운영, 제품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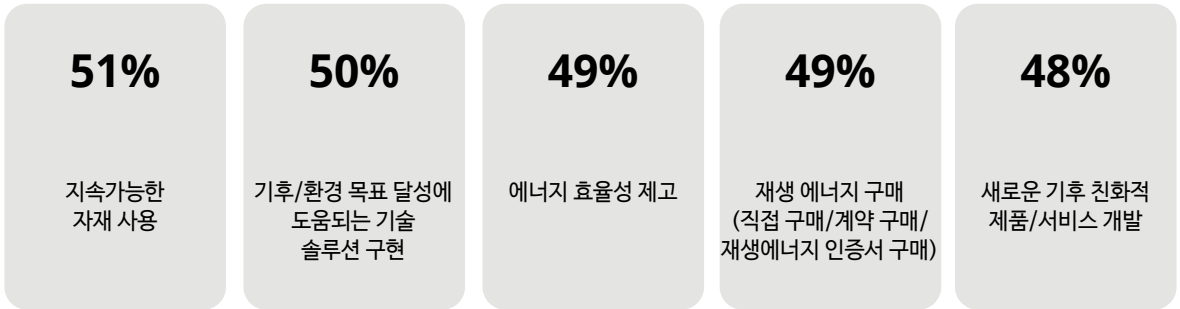
- ✔ 많은 기업이 보다 지속가능한 자재를 도입하고 있다. 이는 환경친화적인 자원으로의 광범위한 전환을 나타낸다.
- ✔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솔루션 구현은 2024년 상위 5대 활동으로 부상했다. 몇 가지 주요 영역, 특히 공급망에서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다.
- ✔ 기업들은 새로운 기후 친화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는 복잡하지만 중요한 활동이다.
- ✔ 공급업체와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구체적인 지속가능성 기준을 제시하면 전체 공급망이 환경 기준을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기후 이슈에 대해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많은 기업이 운영, 인프라, 공급망을 바꾸고 있다.



Q 귀사는 지속가능성 활동의 일환으로 다음 중 어떤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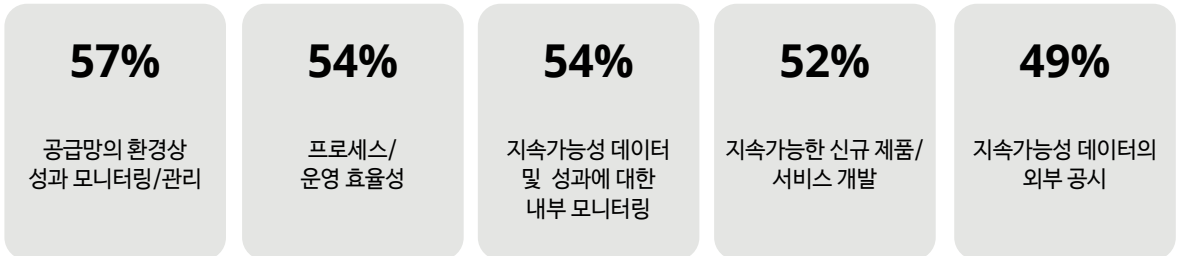
(해당 항목 모두 선택)

상위 기업 활동



활동을 추진하는 기업이 선택한 기술 솔루션의 적용 영역

귀사는 기후나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분야에서 기술 솔루션을 구현중이거나 구현할 계획입니까?



CxO들이 점차 기후행동의 혜택과 비용이 공정하게 분배되는 데 집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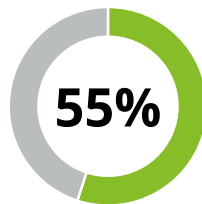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전략의 핵심 요소로 '기후 평등'(climate equity)과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우선시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녹색 경제로 전환 시 발생하는 상당한 혜택을 폭넓게 공유하는 동시에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국가, 지역, 산업, 커뮤니티, 노동자 또는 소비자를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 기후 평등의 중요성:** 55%의 기업이 지속가능성 활동에서 기후 평등 및 정의로운 전환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작년 46%에서 크게 상승한 수치다. 이는 기업이 환경적 영향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저탄소 경제의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하는 데 대해 의지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지역 사회 참여:** 54%의 기업이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는 기후 변화의 피해를 입기 쉬운 인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53%는 역사적으로 이어 내려오는 환경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 녹색인력(Green Workforce) 양성:** 딜로이트 글로벌의 모델링(Work toward net zero)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8억 개 이상의 일자리가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상황과 경제 전환의 영향에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49%의 기업이 근로자들을 녹색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경제에서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Q '기후 평등' 또는 '정의로운 전환'이 귀사의 지속가능성 활동에 어느 정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응답자



Q 귀하의 조직은 지속가능성 활동에서 기후 평등 또는 공정한 전환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54%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 협력

53%

과거부터 이어져 온 환경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 사회와 협력

49%

근로자들을 녹색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킴

45%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지역 사회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44%

취약한 지역사회 및/또는 개발도상국 시장에 대한 투자

온건적 기업



“ 저는 기업 지속가능성 여정 가운데 다양한 단계를 밟는 기업을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규제 준수 차원의 활동에서 시작해 점차 운영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공급망 영역까지 번지다가 비즈니스 기회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공시 요건이 등장하면서 다시금 규제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구글 최고지속가능성책임자
Kate Brandt



“ 우리는 수년 동안 ESG 여정을 걸어왔으며 모든 영역에서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선두에 서서 시장을 이끌며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퓨레이터 사장 & CEO
John Ferguson



“ 저는 이를 곡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이르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이미 늦어버린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적으로 최적의 시점이 되기 전보다 조금 더 일찍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규모의 경제와 재정적 회복탄력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잉카 그룹(IKEA) 부대표 & 경영이사회 멤버 & CFO
Juvencio Maetzu



“ 우리가 발견한 주요 주제 중 하나는 현재 차세대 기후 기술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자본의 ‘중간층’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벤처라 하기엔 규모가 너무 크고, 대형 인프라 펀드가 참여하기에는 아직 충분히 안정적이지 않은 이 중간 단계에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로 보고 있는 두 가지 영역은 첫째, 이 중간 자본층을 해결하는 것과 둘째, 전환 계획 및 전환 금융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바클레이즈 기업 및 투자 은행 지속가능금융 글로벌 책임자
Daniel Hanna



“ 사람들은 단순한 말 그 이상을 기대합니다. 실제로 진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기복 없이 꾸준히 성장할 수는 없지만, 시간 경과에 따라 발전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고객뿐만 아니라 투자자, 분석가 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약속 뒤에 실질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해 기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레노버 글로벌 ESG 및 규제 준수 담당 수석위원 **Mary Jacques**

중대한 변화를 이끌어 낼 거대한 '온건적 기업 그룹'

기업들은 활동을 확대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당한 잠재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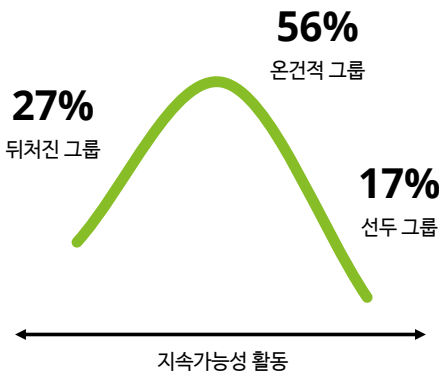
- 선두 그룹:** 17%의 기업은 4~5개의 지속가능성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 문제에 대해 총체적이고 적극적인 접근법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 이 기업들은 또한 환경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이자 전략의 핵심으로 보는 경향이 높다(53%).
- 온건적 그룹:** 대부분의 기업들(56%)은 2~3개 주요 조치에 지속가능성 노력을 집중하여 핵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고자 한다.
- 뒤처진 그룹:** 27% 이상의 기업은 최소한의 조치만 취했거나 아예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들 중 63%는 기후변화가 자신들의 운영과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하면서도 조치를 미루고 있다. 파리 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그룹이 빠르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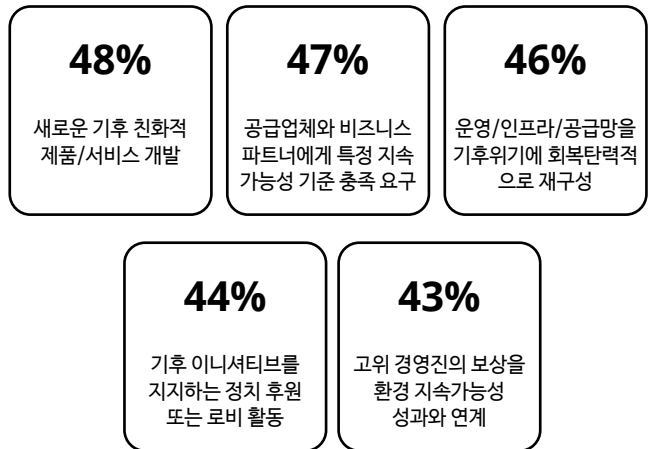
Q 귀사의 지속가능성 활동의 일환으로 이미 진행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해당 항목 모두 선택)

기업 그룹별 분포



실행이 어려우나 중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치*



* 딜로이트 글로벌 분석에 따른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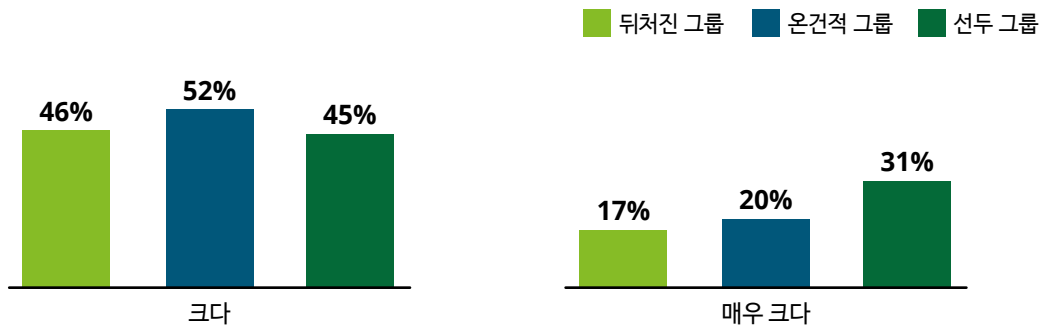
지속가능성을 핵심 전략으로 삼는 경향이 적은 온건적 기업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인식은 기업 그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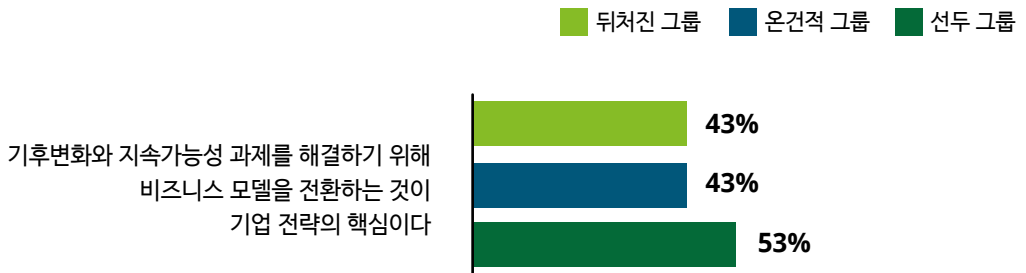
- ✔ 온건적 기업 중 52%가 향후 3년 내에 기후변화가 자사의 전략과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이 그룹 내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긴급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뒤쳐진 그룹에서는 46%가 큰 영향을 예상하고, 17%만이 매우 큰 영향을 예상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두 그룹에서는 45%가 큰 영향을 예상하는데, 31%가 매우 큰 영향을 예상하여 기후변화의 중요한 영향을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선두 그룹의 53%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 모델 전환이 기업 전략의 관건이라고 답했다. 온건적 그룹과 뒤쳐진 그룹은 각각 43%만이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강조하여, 지속가능성을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삼을 경향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Q 향후 3년 동안 기후변화의 영향이 귀사의 전략과 운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1개 선택)



Q 귀사의 현재 환경 지속가능성 및 기후변화 과제에 대한 접근법을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온건적 그룹은 기업의 기후행동에 변곡점을 가져올 잠재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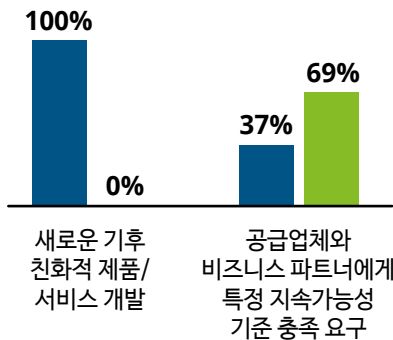
중대한 변화를 끌어 낼 2~3가지 조치를 진행한 온건적 기업(56%)은 기후변화가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며, 작년 보다 투자를 소폭 늘렸다. 이들은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보통 또는 높은 수준의 압박을 느끼고 있다.

- ✔ 조사 데이터는 온건적 그룹 내 뚜렷하게 구분되는 두 진영의 각기 다른 접근법과 전략을 보여준다. 하나는 **'지속가능성 비즈니스'**(The business of sustainability)로, 떠오르는 녹색 경제에 기여하는 지속가능성 비즈니스를 추구하는 쪽이며, 다른 하나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 전환'**(becoming a sustainable business)으로 자사의 환경적 영향을 해결하고 공급망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는 데 중점을 두는 쪽이다.
- ✔ 선두 기업들은 이 두 가지 접근법을 통합하여 총체적인 지속가능성 전략을 수립했다. 온건적 그룹에 속한 다수의 기업이 분발한다면, 다방면에서 변화를 도모하는 기업들로 인해 변화의 임계점에 도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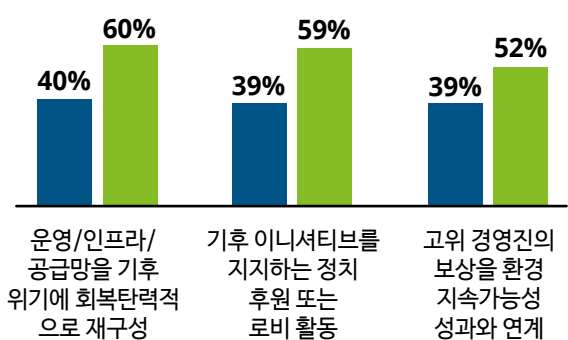
온건적 그룹 내 하위 그룹



Q 귀사의 환경 지속가능성 활동의 일환으로 다음 중 어떤 활동 실행했거나 실행할 계획입니까?



Q 귀사의 환경 지속가능성 활동의 일환으로 다음 중 어떤 활동 실행했거나 실행할 계획입니까?



■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 전환 ■ 지속가능성 비즈니스

제언: 미지근한 대응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에너지 위기나 인플레이션, 경제적 불확실성 등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살펴보면, 기후변화가 이러한 우려스러운 트렌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기후변화의 한 징후이지, 기후 활동의 방해물이 아닙니다.

SAP 최고지속가능성및커머셜책임자
Sophia Mendelsohn



“기후변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이는 단지 기업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레노버 글로벌 ESG 및 규제 준수 담당 수석위원
Mary Jacques



“채권 보유자, 신용 평가 기관, 직원, 커뮤니티는 모두 우리가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해 더 포괄적인 접근법을 취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는 옳은 일이었습니다.

어드벤처헬스 최고재무책임자
Paul Rathbun



“바클레이즈는 지속가능성과 탈탄소화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과 프랜차이즈를 구축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경제의 전면적인 재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편에는 자본과 자본 활동이 필요할 것이며, 우리는 고객들이 탈탄소화 과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바클레이즈 기업 및 투자 은행 지속가능금융 글로벌 책임자
Daniel Hanna



“지속가능성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는 제품, 배송용 전기차, 고객 중심주의, 직원 유치/유지/관계 구축 능력, 공급망의 변화하는 환경에도 지속가능성이 관통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노력은 장기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능하게 합니다.

퓨로레이터 사장 & CEO
John Fergu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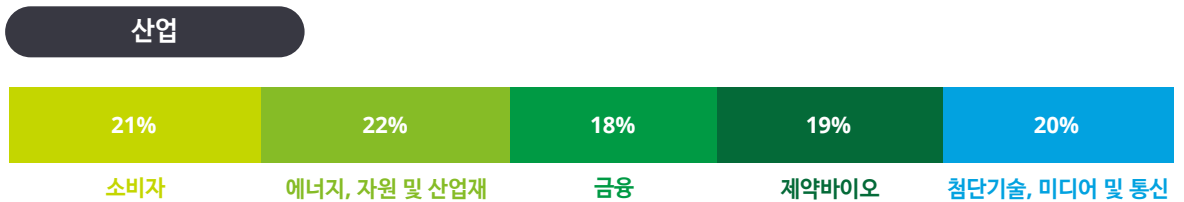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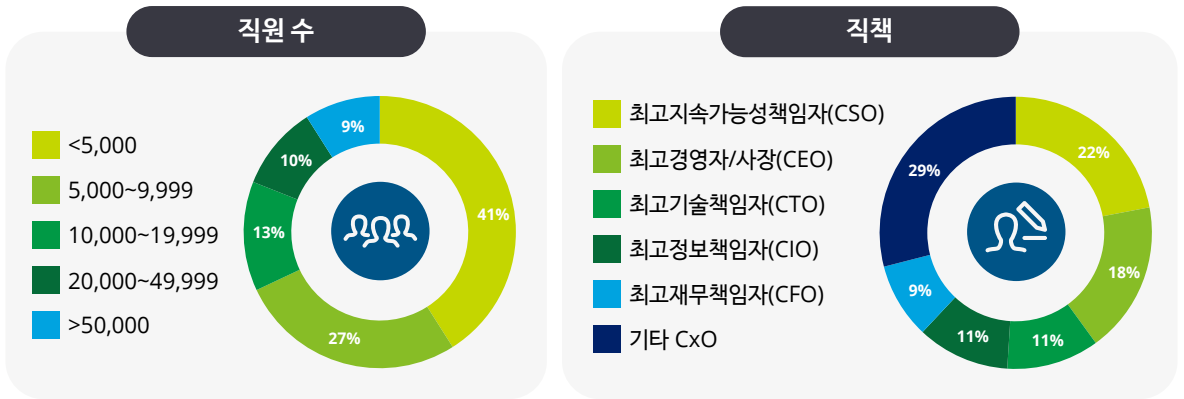
기록상 가장 더운 해를 보내고⁴ 기후변화 영향이 현실로 드러나는 지금, 기업들은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배출량을 즉각적으로 빠르게 줄이고, 지구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는 시대에 회복탄력성을 구축해야 하며, 취약 계층이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의 영향을 불균형적으로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속가능성 활동은 다양한 비즈니스 이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온건적 그룹'에 속한 기업들은 자사 비즈니스와 지구에 모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국면을 전환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선두 기업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

- ✔ **주요 강점을 바탕으로 확장:** 어떤 기업들은 태양광 패널, 전기차, 재생 농업, 탄소 제거 프로젝트 등 저탄소 경제에 필요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성 비즈니스'에 적합할 가능성이 크다. 어떤 기업들은 핵심 프로세스에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하고 공급업체와 정책 입안자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하는 다면적인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로 나아가기가 수월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역할 모두 중요하며, '온건적' 기업들은 현재 집중하는 영역에서 노력을 강화할 수 있다.
- ✔ **영향력을 발휘하는 다양한 방안 고려:** 기업들은 고객, 직원, 공급업체, 정책 입안자, NGO, 커뮤니티 구성원들과의 협력을 포함해 지속가능성 노력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폭넓게 고민해야 한다. 기업의 영향력과 범위는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클 수 있다.
- ✔ **외부 협력:** 광범위한 영향력을 실현하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 심지어 경쟁사와 협력하여 지속가능성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공급망 전반에 걸친 협력은 산업 전반의 개선을 이끌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급업체와 협력해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은 제품의 전반적인 환경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규제 당국과 협력하면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경쟁사와의 협업은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표준을 정립하고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다.
- ✔ **비즈니스 사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이점 검토:** CxO들은 지속가능성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다양한 혜택을 보고하고 있다. 기업들이 목표를 높이고 변화를 이끄는 행동을 추진하고자 할 때, 리더들은 얻을 수 있는 유형적, 무형적 이익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시장과 규제 요건이 끊임없이 진화함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사업의 핵심으로 삼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들이 미래 경제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방법론

본 보고서는 딜로이트의 의뢰로 KS&R이 전 세계 2,103명의 최고경영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다. 2024년 5월~6월 응답자와 연구자 모두에게 공정성과 기밀을 보장하기 위해 이중맹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에는 27개국*의 응답자가 참여했다(유럽/중동/남아프리카 46%, 북미 17%, 남미 9%, 아시아태평양 28%). 각 주요 산업 부문을 표본에 포함했다. 또한 KS&R와 딜로이트는 글로벌 업계 리더들을 엄선해 일대일 인터뷰를 진행했다.

* 조사 대상 국가: 한국, 호주,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영국,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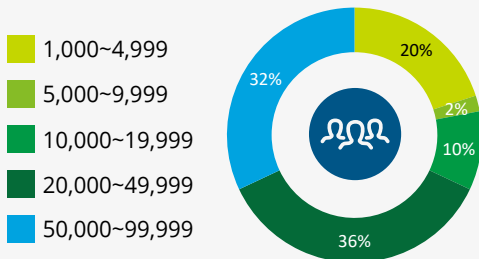


한국 CxO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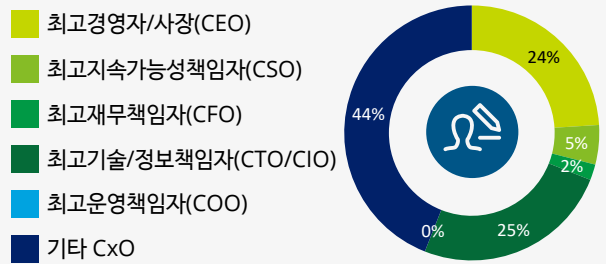
설문조사 개요

한국 임원 59명 대상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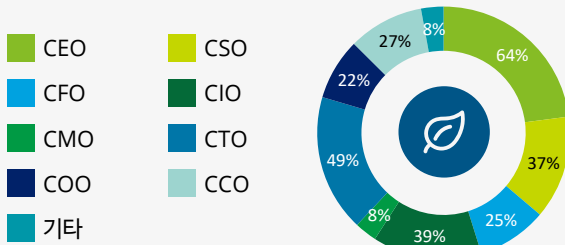
직원 수



직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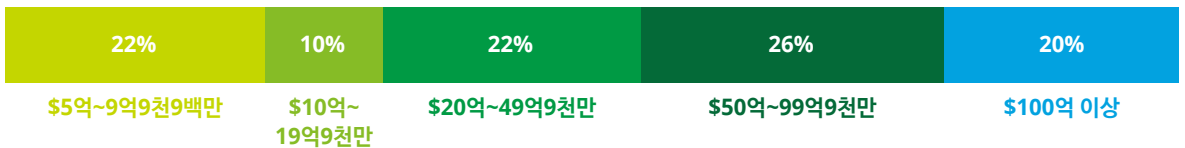


자사의 기후 목표 담당 직책(복수 선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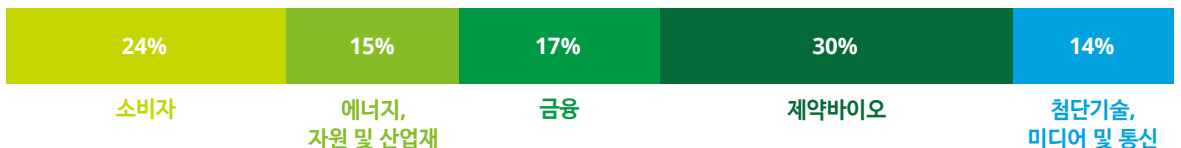


*일부 응답자는 회사 내에서 여러 직책이 책임을 맡고 있다고 답했으며, 그 결과 도식 내 비율의 총합이 100%를 초과했다.

수익(미화)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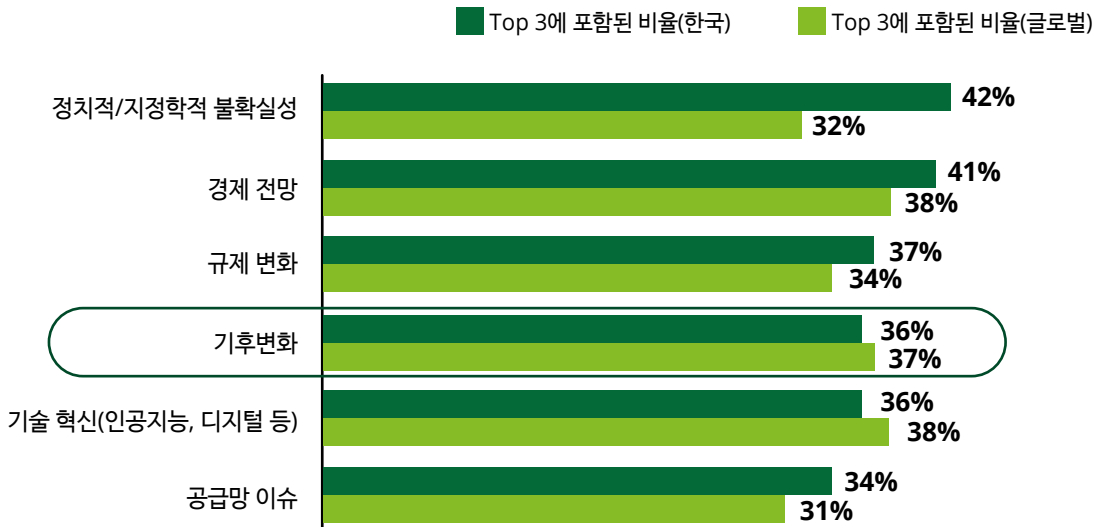


여러 시급한 이슈 중 '기후변화'는 여전히 최우선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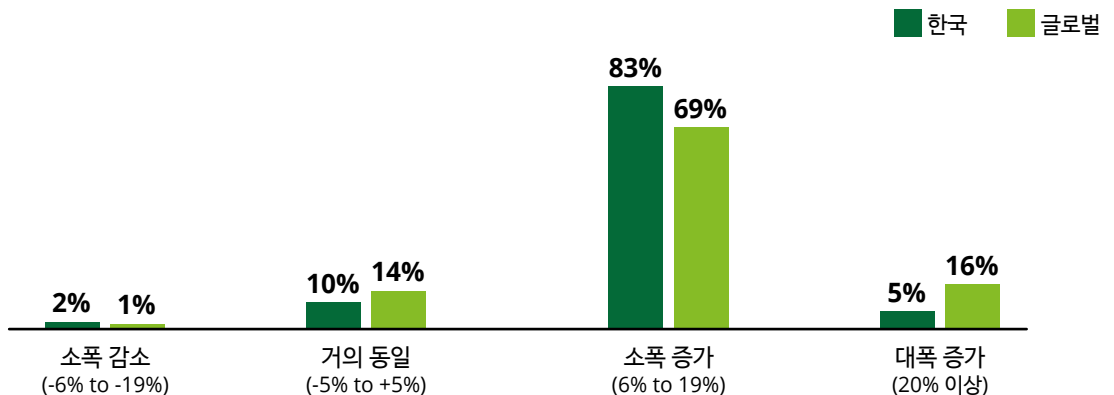
기후변화는 전 세계 기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CxO들은 이를 '기술 혁신'과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평가했으며, 공급망 문제보다 높은 우선순위로 꼽았다.

- ✔ 국내 기업 사이에서 기후변화는 정치적 불확실성, 경제 전망, 규제 변화에 이어 최우선 순위로 꼽혔다. 국내 기업들에게 기후변화 이슈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 ✔ 마찬가지로 많은 국내 CxO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지속가능성 투자를 늘렸다고 답했다. 이들이 기후행동에 대해 심각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속가능성 투자에 대한 이들의 노력은 글로벌 기업들과도 맥을 같이한다.

⚙️ Q 귀사에서 내년에 집중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이슈는 무엇입니까? (중요도 순으로 순위를 매기세요)



⚙️ Q 지난 한 해 동안 지속가능성 투자는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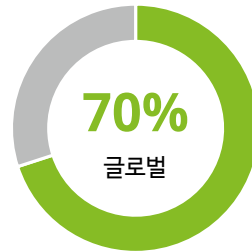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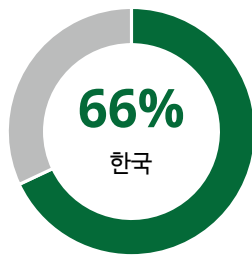


기업 전략과 운영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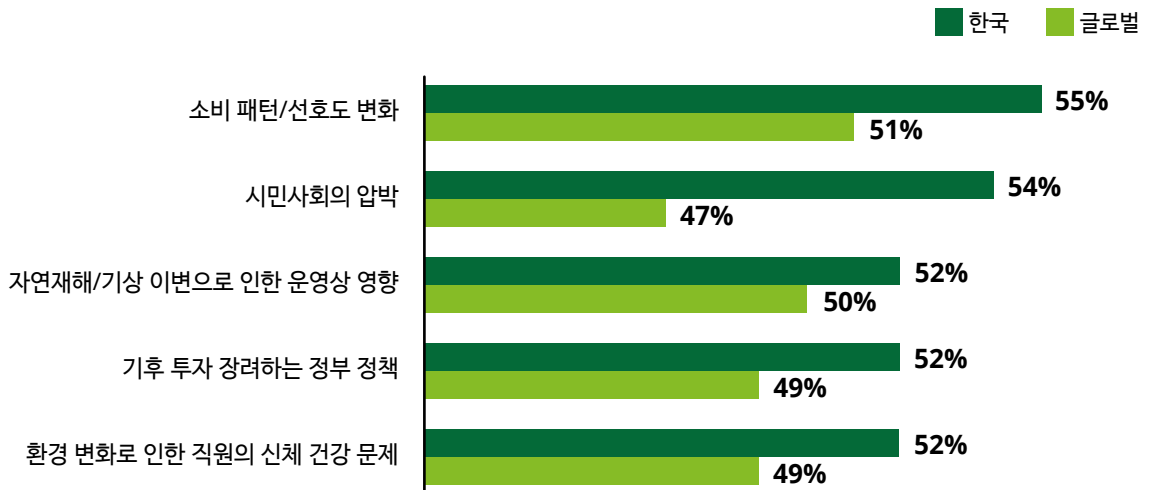
국내 CxO의 66%는 향후 3년 이내에 기후변화가 기업 전략과 운영에 큰 영향/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전 세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 ✔ 이미 다양한 기후 영향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CxO 수 역시 이러한 예상을 반영하며, 기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준다.
- ✔ 기후변화로 인한 소비 패턴/선호도 변화는 국내 경영진의 가장 큰 관심사이며, 55%는 이미 이러한 영향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다. 시민사회의 압박, 운영상 영향, 정부 정책, 직원의 신체 건강 문제도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 향후 3년 동안 기후변화가 회사의 전략과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높거나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임원 비율



Q 이미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후 문제
(해당되는 항목 모두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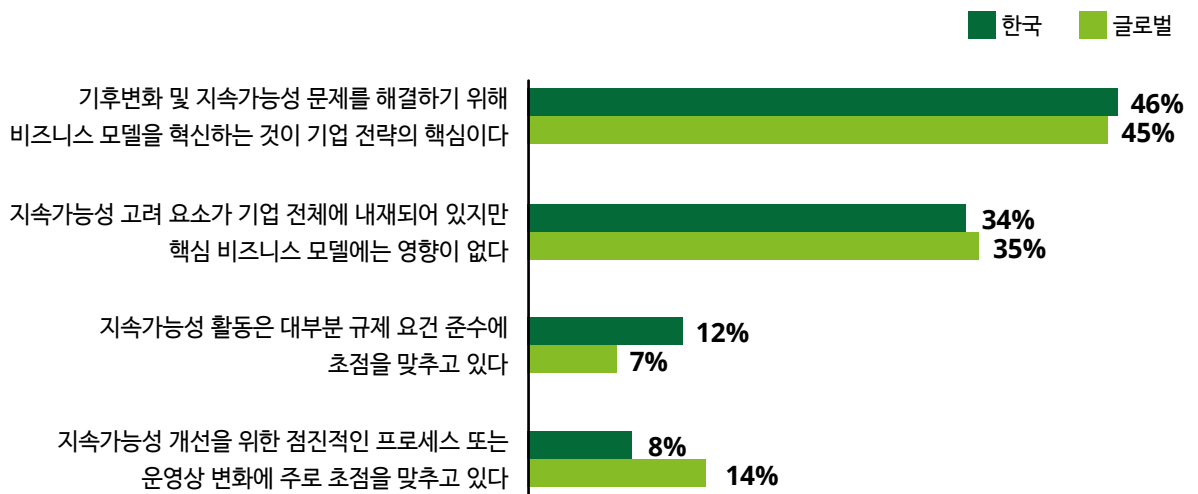
기업 지속가능성을 위해 포괄적인 접근법 취하는 기업들

전 세계 기업 및 국내 기업의 5개 사 중 2개 사 이상의 조직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것이 전략의 관건이라고 답했다. 약 1/3의 기업은 기업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 고려 요소가 내재해 있으나, 핵심 비즈니스 모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다.

- ✔ 특정 국가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이 한국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랍에미리트(64%), 일본(55%), 이탈리아(55%), 스위스(53%), 중국(53%)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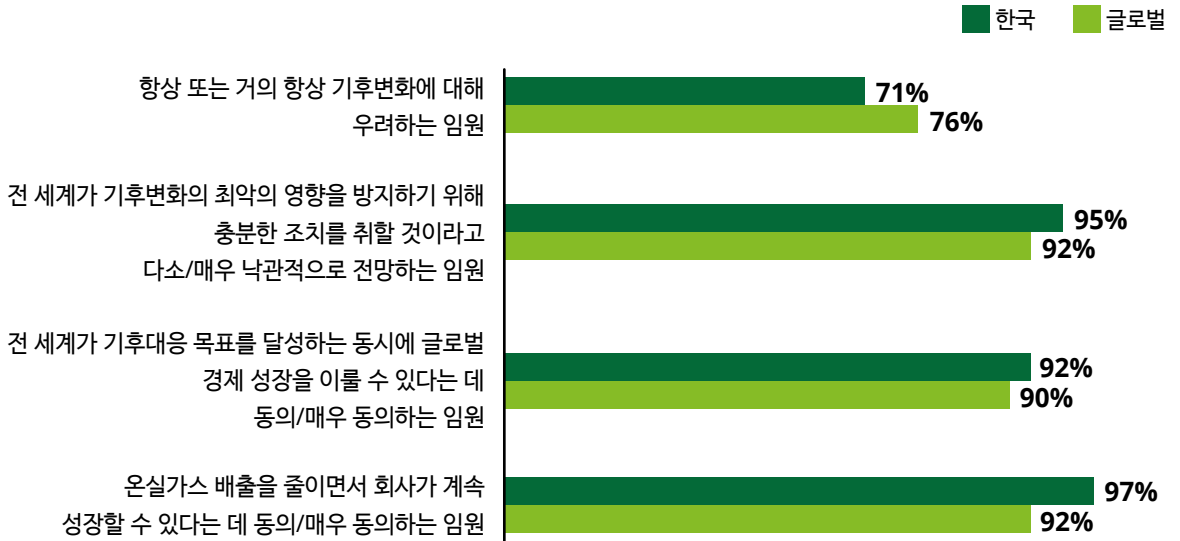
Q 다음 중 환경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귀사의 현재 접근법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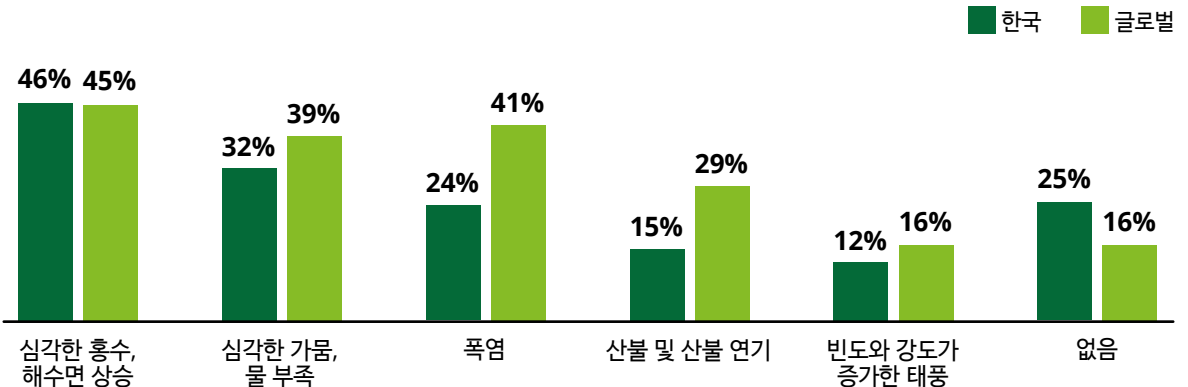
CxO들은 기후변화 영향을 체감하면서도 효과적인 행동의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

국내 CxO의 71%가 기후변화에 대해 항상 또는 거의 항상 우려하고 있다고 답해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우려와 인식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 평균인 76%와 비슷한 수치이다.

- 이러한 우려는 지난해 극심한 홍수와 폭염, 해수면 상승, 극심한 가뭄 등 재해를 직접 경험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xO들은 높은 수준의 낙관론 또한 보고하고 있어, 기후행동의 잠재적 이점에 대해 신뢰가 두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Q 지난해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 항목 모두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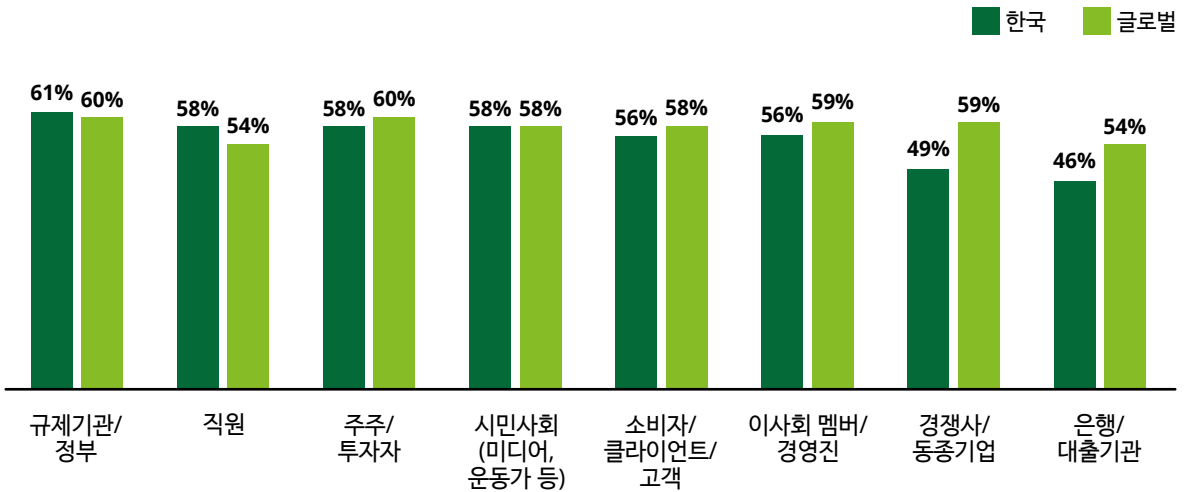


이해관계자로부터 광범위한 압박 받는 기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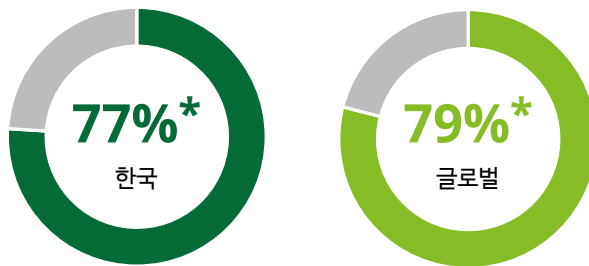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기업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 특히 규제기관/정부, 직원, 주주/투자자, 시민사회로부터 비슷한 수준의 압박을 받고 있다.

- ✔ 글로벌 평균과 비교했을 때, 한국 CxO들은 직원으로부터의 압박을 다소 많이 느끼고 있으며, 경쟁사/동종업계 및 은행/대출기관으로부터의 압박은 더 적다고 답했다.
- ✔ 한국 응답자(77%)와 글로벌 응답자(79%) 모두 이해관계자로부터 기후 이니셔티브를 강화하라는 압박을 상당 부분 받고 있다고 답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집단행동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Q 다음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기후변화에 대해 행동하라는 압박을 크게/보통 수준으로 느끼는 경영진



Q 이해관계자 집단 전반적으로 기후행동을 늘리라는 압박을 느끼는 기업의 평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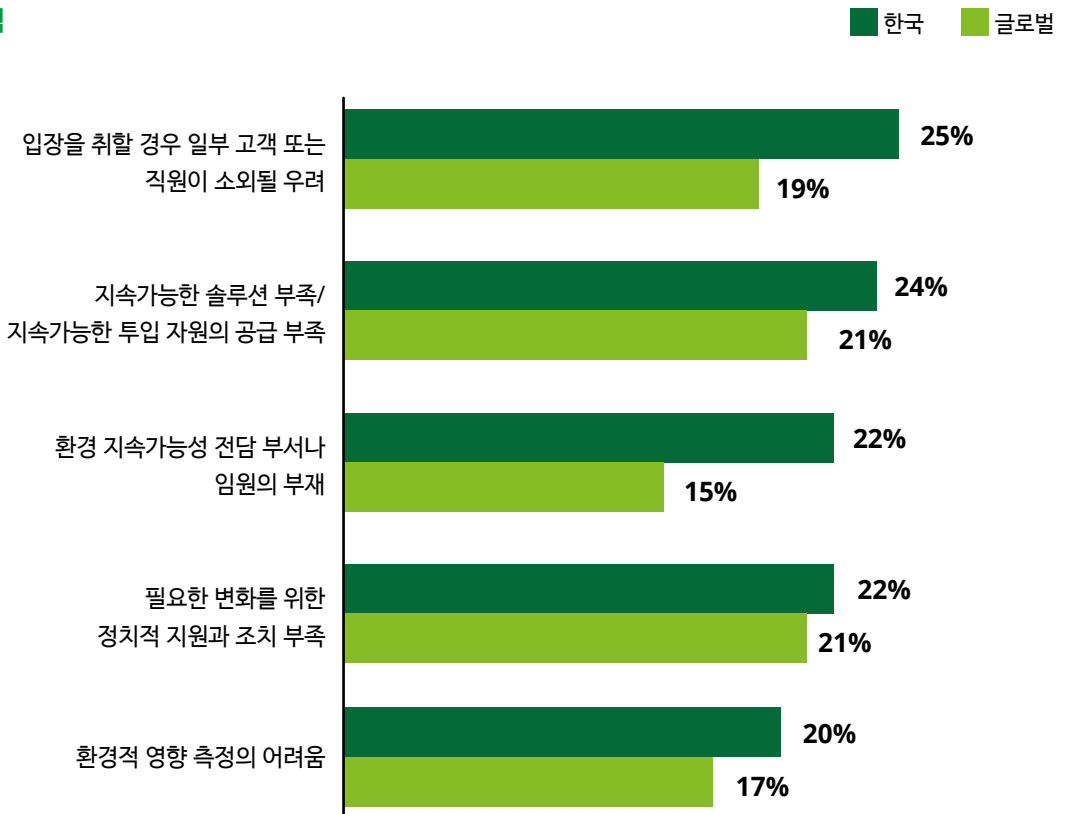
*해당 수치는 '기후행동을 다소 또는 상당히 늘려야 한다'를 선택한 모든 이해관계자 그룹의 평균을 나타낸다.

기후변화 대응을 복잡하게 만드는 다양한 장벽

기업들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특정 고객/직원 소외에 대한 우려와 지속가능한 솔루션/투입 자원 부족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 ✔ 한국 기업과 글로벌 기업은 비슷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국내 기업은 입장을 취할 경우 일부 고객 또는 직원이 소외될 문제와 지속가능성 전담 부서/임원의 부재와 관련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op 5 장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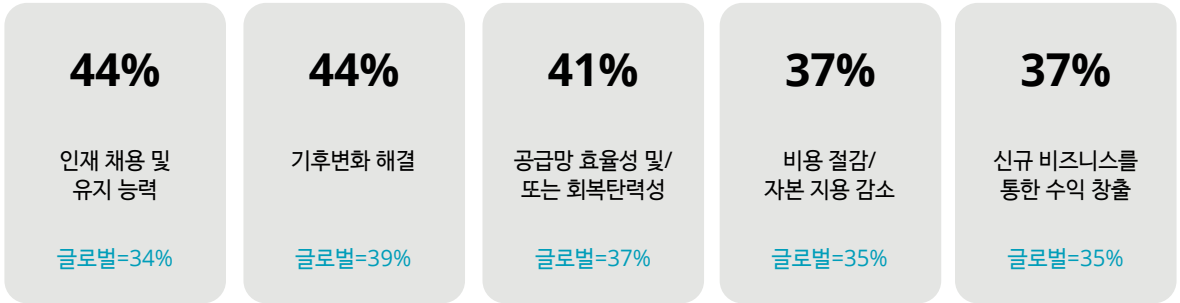
인지도와 평판 향상을 넘어 다양해진 기후행동 혜택

지속가능성 활동이 가져오는 주요 이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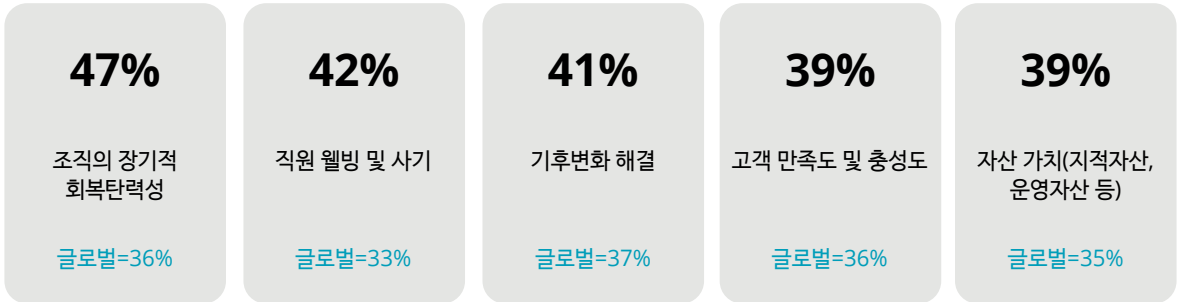
전 세계 기업들에게 가장 큰 혜택은 '기후변화 해결'이지만, 국내 기업들은 특히 인재 채용/유지 능력과 공급망 효율성/회복탄력성 측면에서도 이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국내 기업이 경험하는 부가적인 혜택으로는 비용 절감과 신규 비즈니스를 통한 수익 창출 등이 있다.
- ✔ 향후 5년 동안 국내 기업들은 장기적인 회복탄력성, 직원 웰빙 및 사기, 고객 만족도, 자산 가치 등 기후변화 해결을 통해 더 많은 이점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상위 5개 혜택



향후 5년 내 기대되는 상위 5개 혜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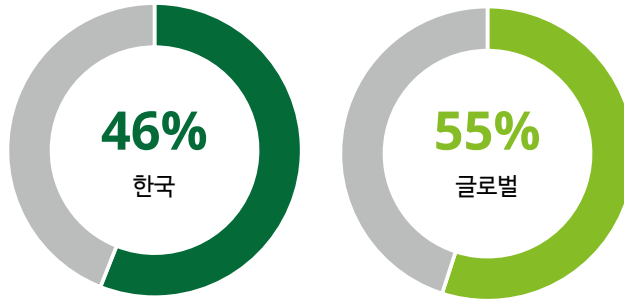
기후 평등과 정의로운 전환의 중요성은 계속 커진다

한국과 글로벌 차원에서 조사 대상 조직의 절반가량이 정의로운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꼽아,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그러나 한국은 정의로운 전환을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한 국가 중 21위를 차지해,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뒤처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조사에 참여한 국내 기업의 60%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46%가 역사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42%가 취약한 지역사회와 시장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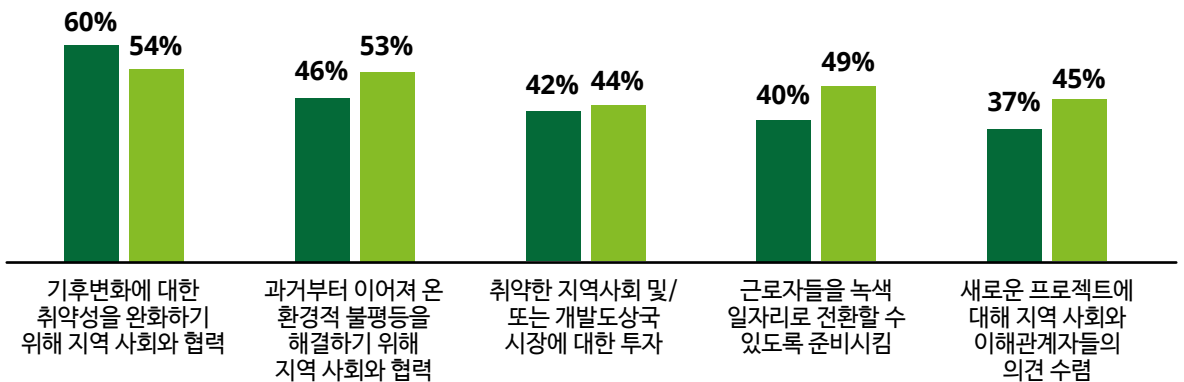


Q '기후 평등' 또는 '정의로운 전환'이 자사의 지속가능성 활동에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영진



Q 귀하의 조직은 지속가능성 활동에서 기후 평등 또는 공정한 전환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 한국 ■ 글로벌



기업들은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속가능성 조치 시행 중

국내 및 글로벌 기업들은 지속가능성 행동의 일환으로 기후 친화적인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고위 임원의 보상을 지속가능성 성과와 연계하는 등 서로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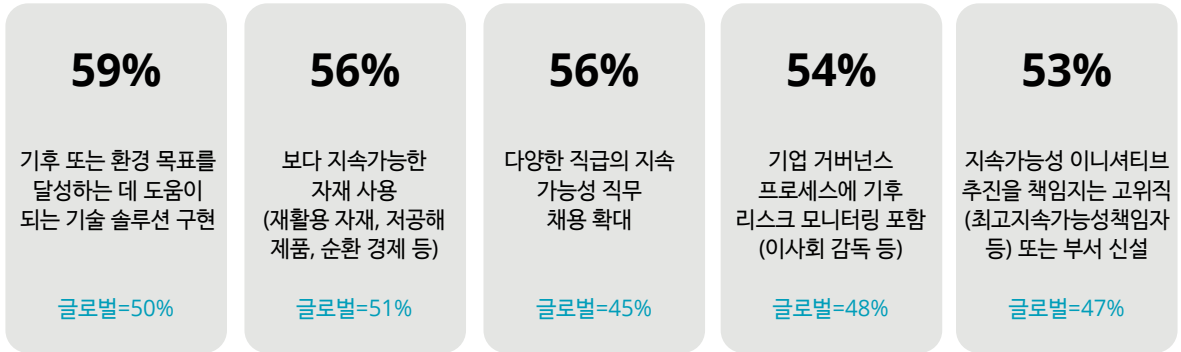
- ✔ 국내 기업들은 기술 솔루션 도입, 지속가능성 직무 채용 확대, 기업 거버넌스 프로세스에 기후 리스크 모니터링 포함 등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실행하기는 어려우나 큰 변화를 불러오는 행동을 추진하는 국내 기업의 수는 글로벌 기업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아직 발전의 여지가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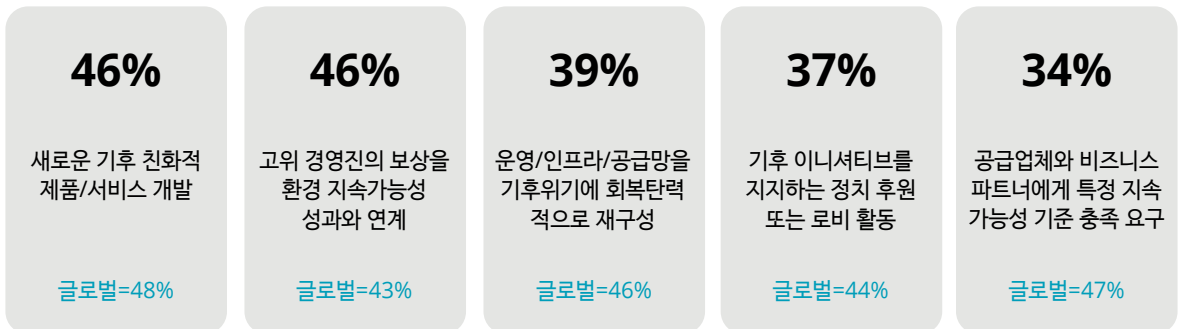
Q 귀사의 지속가능성 활동의 일환으로 이미 진행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해당 항목 모두 선택)

진행한 조치



실행이 어려우나 중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치*



* 딜로이트 글로벌 분석에 따른 정의

주석

1.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NOAA), "2023 was the world's warmest year on record, by far," January 2024
2. Robin D. Lamboll, et al., "Assessing the size and uncertainty of remaining carbon budgets," Nature climate change, 2023
3.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 World Energy Outlook 2023, October 2023, License: CC BY 4.0 (report); CC BY NC SA 4.0 (Annex A)
4.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2023년은 사상 가장 더운 해였다," 2024년 1월

딜로이트 산업 전문가

ESG 공시, 전략, 평가대응, Assurance

깊이 있는 산업별 전문 지식과 다년간의 ESG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보유한 전문 인력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에 걸쳐 기업의 실효성 높은 저탄소 전환 및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합니다. 또한, 딜로이트의 차별화된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술을 통해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SG 전문가



조남진 파트너

ESG 통합서비스그룹 리더

☎ 02 6676 1997

@ namcho@deloitte.com



Nicola Weir 파트너

CSRD & Global Corridor | ESG 통합서비스 그룹

☎ 02 6676 3178

@ nweir@deloitte.com



김병삼 파트너

ESG 전략 및 공시, 탄소중립, 기후기술 | ESG 통합서비스그룹

☎ 02 6099 4277

@ byungsakim@deloitte.com



박태호 파트너

ESG 공시, 보고서 및 평가대응 | ESG 통합서비스그룹

☎ 02 6676 2163

@ taehpark@deloitte.com



연경희 파트너

ESG 전략 및 공시 | ESG 통합서비스그룹

☎ 02 6676 1949

@ kyeon@deloitte.com



유준혁 파트너

ESG 전략 및 탄소배출 | ESG 통합서비스그룹

☎ 02 6676 3096

@ junyoo@deloitte.com



이옥수 파트너

ESG 전략, 공시 및 금융 | ESG 통합서비스그룹

☎ 02 6099 4425

@ okslee@deloitte.com



허규만 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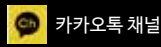
ESG 공시 및 Assurance | ESG 통합서비스그룹

☎ 02 6676 1454

@ kyhuh@deloitte.com



앱



카카오톡 채널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Download on the
App StoreGET IT ON
Google Play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리더

정동섭 Partner

dongjeong@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연구원

권은진 Senior Consultant

eukwan@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